

순천시 “아시아 습지 관리자, 순천에서 습지 관리 노하우 배워요”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에서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5개국 30여 명이 참석하는 아시아 습지관리자 교육 워크숍을 순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워크숍은 람사르습지 정보지 작성과 갭신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람사르습지 정보지(RIS, Ramsar Site Information Sheet)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준비하는 습지의 생태적, 지리적, 수리수문학적, 사회적 정보

를 담고 있는 자료이며, 람사르습지 등록 시 필수 람사르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지이다. 람사르습지 정보지는 람사르협약의 온라인 람사르습지 정보지 서비스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전세계 누구나 각 람사르습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개방 데이터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은 각 국가별로 등재되는 람사르습지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등록을 위한 정보지 작성 방법론 및 등재 후 정보지 갭신 방법에 대

한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을 교육해 양질의 람사르습지 정보지를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있다.

4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아시아 지역 및 해당 국가에서 영여 또는 자국어인 람사르습지 정보지 작성과 갭신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진다. 4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각 국가별 중앙정부 소속 및 상응하는 학술기관의 람사르협약 및 람사르습지 정보지 취합·관리 담당

자가 참석해 해당 참석자의 람사르 습지 정보지 작성 및 갭신에 관한 교육과 각 국가별 람사르협약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나누는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은 전체 참가자가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해 도심~국가정원~순천만으로 이어지는 도시 생태축 복원 과정과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조류 서식지 보전 사례를 배울 예정이다.

/최종민 기자

여수, 청년단체 역량강화 공모사업 추진

팀당 최대 800만 원 지원...30일까지 참여단체 모집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들이 지역 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 청년단체 역량강화 공모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 총 3개 팀을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팀당 활동 수행비를 최대 80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이전 여수시 읍면동, 마을 등에 설립된 청년단체(기업)로, 여수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청년(18세~45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모 내용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복지·자치 역량강화사업 △지역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청년단체 활동 △지역 주민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역상생 발전 프로그램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단체는 오는 30일까지 청년일자리과(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가능한 지역상생 발전 프로그램 등이다.

시는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년단체 활동,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 공모사업을 추진해 청년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김태완 여수시 청년일자리과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춘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내용의 적격성 등 심사를 통

/최종민 기자

구례군, 친환경 포충기 정비

구례군은 최근 해충 퇴치를 위해 군 전역의 친환경 포충기를 일제 정비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충의 활발한 초기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군은 선제적 방역에 나섰다.

현재 구례군 보건의료원은 포충기 18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례읍 강변길, 문척면 마을회관, 광의면 유산각 등 5개소에 해충 유인기를 추가 설치했다.

해충 유인기는 포충기로도 불리는 물리적 방제기로 방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치는 해충을 유인하는 빛과 자외선 파장(350mm~400mm)을 이용해 모기,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등의 날벌레를 유인해 퇴치한다. 유인기 내 1차 팬의 흡입력으로 해충을 빨아들인 후, 2차 팬으로 해충을 타격해 잔해를 아래로 배출하는 구조다.

또한 군 보건의료원은 기온 상승에 따른 해충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172개 자율방역단과 함께 주거 밀집 지역과 5일시장 주변 하수구·오수관에 유충구제 약품을 투입했다.

구례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주민들은 내 집 앞 고인 물 제거, 페타이어와 고무통의 빗물 고임 방지 등을 통한 해충 서식지를 제거하고 질병관리청 국민행동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경석 기자



광양시는 최근 신원둔치 주차장에서 여수MBC·MBC경남·광양시체육회·하동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3회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성료

광양시는 최근 신원둔치 주차장 일원에서 여수MBC·MBC경남·광양시체육회·하동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3회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매년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섬진강 둔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광양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했으며 대회는 풀, 하프, 10km, 5km 등 4개 코스로 구분돼 진행됐다.

풀 코스는 오전 9시에 광양 신원둔치 주차장에서 출발해 남도대교 인근(구례군 운천리)까지 이어진 코스로 진행됐다. 260여 명이 참가한 풀 코스에서는 김정열 씨(2시간

46분23초, 포항시), 문선미 씨(3시간17분59초, 의왕시)가 각각 남녀 1등을 차지했다.

하프 부문에서는 진보성 씨(1시간17분22초, 부산광역시), 이선화 씨(1시간27분1초, 부산광역시)가, 10km 부문에서는 김승관 씨(36분, 광양시), 정순자 씨(41분7초, 진주시)가 각각 남녀 1등을 차지했다.

/최종민 기자

곡성군, 블루베리 공선회 활성화 협의회

곡성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기술보급과장의 주재아래 관계자 3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선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 수확시기를 앞당기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선회와 함께 블루베리를 곡성군 대표작물로 육성해 전국 최고 블루베리 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블루베리 공선회는 블루베리 생산의 규모화와 균일화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에 조직됐다.

곡성군은 작년 기준 생산량 180톤, 조수입 56억 원을 달성해 주요 소득과수로 자리매김한 것에 이어 2025년까지 기반 시설 지원을 통해 생산량 250톤에 조수입 77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동선별 상 황보고 및 2024년도 블루베리 품질 향상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그리고 현재 39ha 규모의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50ha까지 확대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장기간 생과를 지속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산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회의 주요 내용은 군은 농협과 협업을 통해 공선규모를 점차 확대해 블루베리 조기재배 주요산지로 입지를 확보하고 노지 블루베리 재배를 시설하우스 이용 가운재배

/심선섭 기자

2代째 이어온 전통방식의 명품갈비

축가네 경성골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으로 간하고 해풍과 습도가 알맞은 영광 법성포에서 건조하여 그 깊은 고유의 참맛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 이경률

매장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3
 공장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2길 48

주간 061) 356-2173 야간 061) 356-5932
 팩스 061) 356-4215 문자 010-8604-1486
 핸드폰 010-3624-2173 / 010-3833-2173
 농협 351-1092-5533-13 예금주 : 이경률